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헝만 하나 갖춰져 있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헝과 환경이다.
2. 사람이 살아갈 때 사랑만 갖춰져 있다고 기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랑과 환경이다.
3. 하나님을 사랑만 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여 환경도 천국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야 된다.
4. 헝과 배경, 두 가지를 갖춰야 천국이다. 헝이 집이라면 배경은 그 환경들이다. 배경만 갖춰져 있고 헝인 거할 집이 없으면, 그 역시 천국이 되지 못한다.
5. 신앙도 두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황금천국이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갖춰야 된다.
6. 영과 육, 두 가지를 회복해야 황금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기쁘게 행하는 자만이 헝과 배경을 천국으로 만들고 살게 된다.
8.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겹쳐 보이면서 분별하게 하신다.
9. 신령한 분별이다. 성령과 같이 분별하기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현실을 비유하여 분별하게 해 주셨다.

10. 항상 두 가지를 갖춘 것을 보고, 더 좋다고 분별해야 된다.

11. 두 가지를 갖추지 않고 한 가지만 갖춘 것을 보면, 좋지 않다고 분별하고 행해야 된다.